

2011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지난 2월 10일 롯데호텔에서 2011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훈 인하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배윤상 SK건설 실장, 임성빈 LG전자 부장, 임희석 대림산업 팀장, 최동원 SK텔레콤 차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제16대 한국 광고학회장에 선출됐으며, 취임식은 오는 4월 8일 오후 1시 잠실 광고문화 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중앙일보 초청 회원간담회 개최



지난 3월 15일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중앙일보 초청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중앙일보 간부진 100여 명이 참석해 중앙일보의 매체력 및 편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이버언론신고센터 출범

협회는 3월 16일 '사이버언론신고센터'를 출범, 유사언론에 대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제 활동을 적극 펼쳐하기로 했다. 협회 사무국은 200여 회원사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갔



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자체조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해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유사언론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근 매체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일부 군소언론사의 허위 및 음해성 보도, 광고 강매, 협찬 강요

등 광고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언론사 주체의 행사 및 특집기사 협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는 유사언론 대책 및 광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사이버언론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사 피해에 적극 개입,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사이버언론신고센터

신고전화 02-3668-9411, 이메일 unos@kaa.or.kr(성운호 팀장)

인터넷뉴스협의회 발족

3월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뉴스협의회' 발족식과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선포식이 있었다.

인터넷뉴스협의회는 박용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대성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민병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임호균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터넷뉴스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과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을 가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인터넷신문협회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정한 것으로 향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과 함께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활동도 벌여갈 예정이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인터넷뉴스협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사이버언론신고센터 운영, 인터넷포털과의 협의체제 강화, 관계부처 정책 건의 및 법적 대응을 통해 광고를 빌미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는 유사언론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뉴스 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